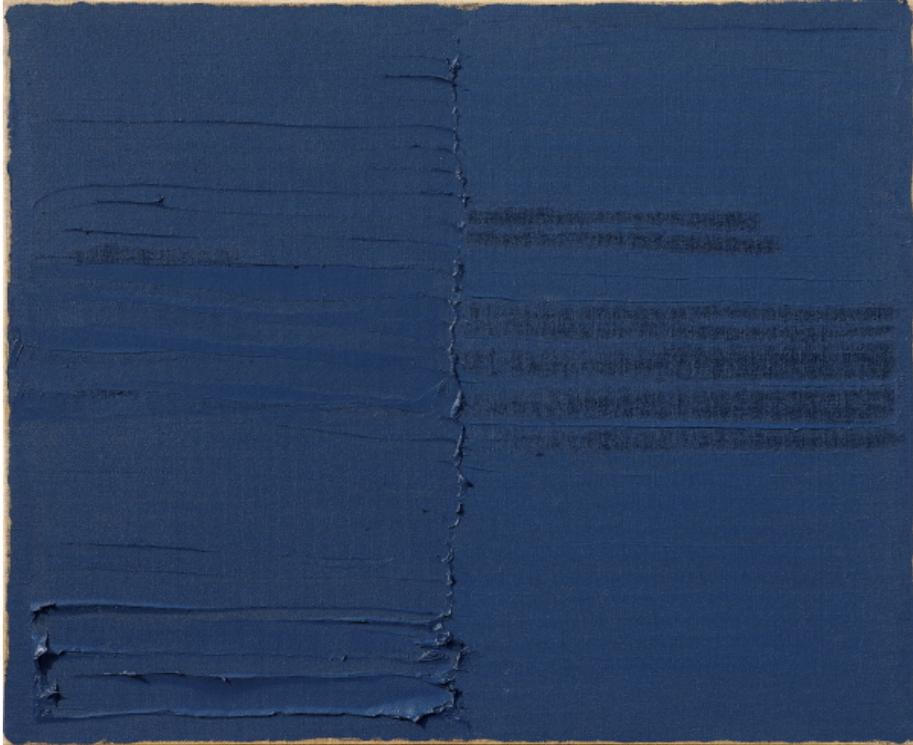


한국 단색화 대표 화가 하종현, 국제갤러리 부산서 개인전

May 21, 2019 | 장청희 기자

page 1 of 2



하종현(b.1935), Conjunction 15-312, 2015, Oil on hemp cloth, 130 x 162 cm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산점서 색채 연구한 '접합' 연작 중점적 선보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 하종현이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인전 'Ha Chong-Hyun'전을 연다.

최근 LA, 파리, 런던, 뉴욕, 도쿄 개인전 등 국외활동에 주력해온 하종현은 국내에서 4년 만에, 부산에서의 첫 개인전을 통해 수십여 년 동안 천착해온 대표 연작 '접합(Conjunction)'의 근작 및 신작 1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국제갤러리 서울점 개인전에서 '그을림(smoke)' 기법을 비롯해 기왓장, 벽돌, 흙, 억새풀 등 자연의 색을 연상케 하는 '접합' 신작을 처음 소개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작가가 근래 새롭게 도입한 적색과 청색, 다홍색의 대형 크기 '접합' 연작을 공개한다.

1935년 경남 산청에서 출생한 하종현은 1959년 홍익대 회화과 졸업 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홍익대 예술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했다.

밀라노 무디마 현대미술재단(2003), 경남도립미술관(2004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2012)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 이후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전 세계 갤러리에서 주요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주요 단색화 그룹전에 참여했다.

지난 몇 년간 영남권에서 부산비엔날레(2016), 대구미술관 그룹전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2018)을 통해 1970년대 초 철조망 작품과 AG 관련한 신문 설치 작품을 전시했다.

하종현은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50여 년에 걸쳐 유화를 다뤄왔다. 이번 'Ha Chong-Hyun'전에서는 작가가 새롭게 탐구한 색채의 대형 크기 '접합' 연작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하종현은 일상 속 익숙한 대상에서 색을 발견하고 이를 조형적인 언어로 치환하는 과정을 작업의 중요한 지점으로 삼고 있다.

마포 고유의 색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검게 칠한 작품 'Conjunction 18-41'(2018)은 단순히 어둡거나 인공적인 검은 톤의 색채가 아닌, 오랫동안 비를 맞은 기와가 세월에 퇴색된 듯한 자연적인 성향의 색채라 할 수 있다.

하종현은 최근 적색과 청색,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다홍색을 '접합'에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작품 'Conjunction 18-12'(2018)에서 보이는 선명한 다홍색은 단청과 한국전통악기의 화려한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Conjunction 18-52'(2018) 역시 마포에 검은색 물감을 칠한 다음, 뒷면에서 흰색 물감을 밀어내어 앞면의 표면에 그을음을 입힌 작품이다. 작가는 검게 그을린 표면을 다시 살짝 긁어내 음각의 형태로 흰색 물감을 노출시키고, 그 위에 얇은 철사를 사용해 서체와 같은 일종의 표식을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는 7월 28일까지 계속되며 국제갤러리 부산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 휴관일이다.